

가이드북(Guide Book)에 나타난 태산(泰山) 경관특성에 관한 연구

위양*, 정태열***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박사과정,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부교수, ***경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운영위원

1. 서론

일본의 가케히 쇼타로(算正太郎)는 1928년에 제작된 다니구치 리카(谷口利花)의 「여행예찬旅行禮讚」에서 “여행은 사람의 생활에 있어 하나의 요건이며 문명인의 특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행을 할 때에는 돈보다 아름다움이 있는 산이나 명소, 유적, 신사, 불각(佛閣)의 진설이나, 역사유래 등에 대하여 이미 대체로 지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서기재, 2005). 즉 가이드북(guide book)의 역할은 자신이 보게 될 목적지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도구로 상정했던 것이다. 태산은 중국 2천 년 동안 제왕 순례(巡禮)의 대상이었고 과거로부터 세계적인 명산이라 불리던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최고의 풍경명승지이었다. 태산이 1,532m로 중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지위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가이드북에 나타난 시계열별 태산 경관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현대의 태산에 대한 역사를 연구할 때 태안(泰安), 제남(濟南)지역의 산맥들을 역사 문화적인 ‘대태산(大泰山)’ 지역으로 꼽았다(Zhou, 2005). ‘대태산’ 지역은 전체적인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풍경 원리의 범위를 구획한 것이다. 장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관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적 범위는 ‘대태산’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태산 경관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태산 풍경명승지 관리처가 주도적으로 편저하고 중국이나 산둥성(山東省) 관광(여행) 서적의 전문 출판사에서 출판 업무를 담당하는 태산 풍경명승지를 중심으로 제작해서 공식적인 경관 가이드북으로 한정하였으며 195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총 10권 가이드북을 수집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가이드북은 어휘를 분리하고 정제하여, 정제된 데이터를 ROST-CM6을 활용하여 경관요소의 빈도를 도출한다. 둘째, 시계열별로 경관요소를 자연경관, 인공경관, 인간활동으로 분류하여 경관유형 및 요소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가이드북에 나타난 지리적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관요소를 GIS에 도입하여 핵밀도, 평균중심, 표준차타원 분석을 통해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 결과 및 고찰

3.1 경관유형 및 요소 분석

3.1.1 경관유형 분석

경관유형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도출된 4,069개 어휘를 자연경관, 인공경관, 인간활동을 3가지 경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경관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연경관(1,551개, 38.1%)을 위주로 인간활동(1,317개, 32.4%)과 인공경관(1,201개, 29.5%)이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계열별로 시문과 빅데이터에 나타난 인간활동 위주의 태산 경관유형 특성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부적인 경관유형별로 보면 중요한 것은 지형(15.0%), 구조물(14.2%), 건물(11.9%), 식물(9.7%), 의미(7.0%), 이미지(7.0%), 사람(6.9%), 수경(6.6%) 순이라고 할 수 있다.

3.1.2 경관요소 분석

경관유형별 중요한 것은 지형 중의 ‘태산정상’, ‘절벽’, ‘산꼭’, 식물 중의 ‘소나무’, 수경 중의 ‘계류’, 유적 중의 ‘석각’, 사람 중의 ‘제왕’, 신앙 중의 ‘봉선’, 이미지 중의 ‘웅장’ 순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많이 나타난 경관요소는 ‘계류’, ‘석각’, ‘태산정상’, ‘절벽’, ‘산꼭’, ‘웅장’ 순이다.

시계열별로 살펴본 결과, 신앙 중의 ‘봉선’과 ‘제사’, 의미 중의 ‘전설’은 195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이 나타났고 1990년대 이후는 행위 활동 중의 ‘등반’, ‘멀리 바라보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부터 태안(泰安)이 국제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민생활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태산국제등산제(泰山國際登山節)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50년대와 1980년대에 태산 가이드북은 신앙 경관(봉선, 제사)과 의미를 중시하고 1990년대 이후는 관광객의 행위활동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공간분포 분석

가이드북에 나타난 지리적 위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관요소를 GIS에 도입하여 경관요소의 공간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전 시기에 걸쳐 태산정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정공간과 대묘(岱廟)에 가장 많이 집중하고, 평균중심은 태산정상과 홍문(紅門)의 중간 사이에서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태안 도시 지역으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경관요소는 태산산악 구역에 집중분포에서 태산산악과 태안 도시에 함께 분산분포로 변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도시화 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산성일체(山城一體)의 도시 발전 전략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태산의 경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태산의 경관유형 및 요소를 분석하고 시계열로 경관요소의 공간분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이드북에 나타난 경관유형의 특성은 자연경관(38.1%)을 위주로 인간활동(32.4%)과 인공경관(29.5%)이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시문과 빅 데이터에 나타난 인간활동 위주의 태산 경관특성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관광지 경관에 관하여 홍보한 경관특성과 태산 경관의 감상 주체인 관광객의 인식에서 명백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위잉과 정태열, 2021, 2022).

둘째, 세부적인 경관유형별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형(15.0%), 구조물(14.2%), 건물(11.9%), 식물(9.7%), 의미(7.0%), 이미지(7.0%), 사람(6.9%), 수경(6.6%) 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태산 경관 가이드북이 태산의 지형, 구조물, 건물 등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 그리고 의미, 이미지, 사람을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신앙 중의 봉선과 제사, 의미 중의 전설은 1950년대와 1980년대에 많이 나타났으며 1990년대 이후는 행위 활동 중의 등반, 멀리 바라보기가 많이 나타났다. 이는 1950년대와 1980년대에는 태산 신앙 활동(봉선, 제사)과 의미를 중시하고 1990년대 이후는 행위활동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경관요소의 공간분포는 전 시대에 걸쳐 태산 대정과 대묘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는 향후 태산 풍경명승지의 중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태간 홍문 등산로 집중분포에서 태산과 태안 도시지역 분산분포의 형태로 변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태산 가이드북을 개선할 때 태산의 매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관 활동참여나 경관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태안 도시와 태산 경관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1. Yu, Y. and T. Jung(2021) A study on the landscape elements and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Mount Tai appearing in poem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9(6): 80-92.
2. Yu, Y. and T. Jung(2022) A study on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Mount Tai in big data. Korea Landscape Council 14(1): 60-76.
3. Seo, J.(2005) Invitation to wonder world: Mount Kumgang seen through the modern travel guide. Study of Japanese Culture 14: 73-91.
4. Zhou Y.(2005) Taishan Tongjian, Pre-Qin to Qing Dynasty. published by Qilu.